



##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서 본 단군신화 - 대전적(大全的) 세계관의 심층 구조 분석 -

Review on Dangun-myth from the standpoint of Process Philosophy of Alfred North Whitehead: An analysis on the deep structure of the World View of Grand Totality

---

**저자**                    엄기성  
**(Authors)**            Ohm, Ki-Sung

**출처**                    [단군학연구](#) , (41), 2019.12, 133-165 (33 pages)  
**(Source)**            [Journal of Dangun Studies](#) , (41), 2019.12, 133-165 (33 pages)

**발행처**                [단군학회](#)  
**(Publisher)**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92460>

**APA Style**            엄기성 (2019).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서 본 단군신화 - 대전적(大全的) 세계관의 심층 구조 분석 -. 단군학연구, (41), 133-165.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7/10 14:5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서 본 단군신화

## - 대전적(大全的) 세계관의 심층 구조 분석 -

엄기성\*

- |   |  |
|---|--|
| I. 머리말  | IV.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과 단군신화 세계관의 심층 구조에 대한 유비적 비교 |
| II. 한국 문명의 시원(始原)으로서의 단군신화: 대전적(大全的) 세계관의 심층 구조 연구의 필요성 | V. 맺음말                                       |
| III. 안종화의 단군신화에 대한 역사화, 철학화 노력                          |  |

### 【국문 초록】

단군신화는 한국 역사와 문명의 시원으로 간주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학적, 사상사적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논문은 안종화, 이남영의 주장을 토대로 단군신화 세계관의 심층 구조를 분석해보고 이것을 화이트헤드의 서양 유기체 철학적 사유와 유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단군신화 세계관의 심층 구조와 관련한 연구의 범주를 최대한 확대해 보고, 그 결과로부터 한국 문명의 미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정치사상의 추출 가능성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 대전(大全) 세계관, 유기체 철학, 세계관의 심층 구조, 유비적 비교, 한국 문명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 I. 머리말

세계의 어느 민족의 역사이든 시원(始原)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외 없이 다양한 형태의 신화와 만나게 된다.<sup>1)</sup> 한국의 역사와 문명도 그 시원을 찾다 보면 단군신화와 직면하게 된다. 단군신화가 없으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논할 때 흔히 언급하는 “반만년 유구한 역사”라는 수식어는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 일찍이 육당 최남선은 “단군은 진실로 조선 문화의 일체 種子(檀君神典의 古義)”라고 까지 표현한 바 있다.<sup>2)</sup>

단군신화라는 텍스트 자체는 전통적 역사서 기술 형태가 아니고 신화적 서술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신화의 경우에는 연구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개별 저자도 없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용어도 현대인의 언어가 아닌 고대인이 자신들의 공동체와 자연환경에 대해 갖고 있던 분여(分與)의 집단적 경험을 상징이나 표상을 통해 전 논리적(前論理的) 형식으로 표현한 내용의 전승(傳承)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화를 현대 학문적 방법론으로 접근할 경우 각종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 학계의 경우 지금까지 단군신화를 본격적으로 우주론적, 철학적<sup>3)</sup> 측면에서 접근함으로

1) 신화(Myth)의 사전적 정의는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 과거 미지의 역사적 사실의 어떤 전통적, 종교적 측면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Myth, a symbolic narrative, usually of unknown origin and at least partly traditional, that ostensibly relates actual events and that is especially associated with religious belief. It is distinguished from symbolic behaviour (cult, ritual) and symbolic places or objects (temples, icons). Myths are specific accounts of gods or superhuman beings involved in extraordinary events or circumstances in a time that is unspecified but which is understood as existing apart from ordinary human experience. 출전: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topic/myth>

2) 이남영, 「思想史에서 본 檀君神話」 『韓國 思想의 深層 研究』, 우석, 1986, 63 쪽에서 재인용.

3) 철학의 사전적 정의는 희랍어로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며 인간 문명과 그

써 단군신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해 보려는 학문적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 같다. 이와 관련 이남영은 신화가 신(神)과 관련된 이야기 형식의 텍스트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결국 인간 집단이 구성한 고대인의 이야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화를 개인의 이성적 경험의 객관화는 아닐지라도 인간 집단의 사회적 경험의 객관화 및 이의 전승(傳承)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정신사 내지는 관념사(觀念史; History of Korean Ideas)의 한 연구범주로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관념사 범주의 연구란 '관념의 의미 자체'에 중점을 두어 탐구하고, 추가로 관념 내부의 심층 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한층 더 고도로 추상화해 보는 과정을 거치며,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보편적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현대적 학술의 방법론이 추구하는 작업과의 차이도 좁혀지고, 이런 과정에서 단군신화 연구의 본격적 학문화를 위한 공통분모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인 것이다. 이처럼 단군신화를 '한국 관념사'라는 학문영역의 한 범주로 간주한다면,<sup>4)</sup> 우리는 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관념 구조 자체의 심층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아야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단군신화를 '한국 관념사'의 범주에서 살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 이남영과 구한말 역사가였던 안중화의 관련 주장을 중심으로 단군신화의 관념적 구조의 내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시사점들을 도출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서양학자로는 독특하게 동양적

---

배경이 되는 자연에 대한 전면적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학문으로서의 철학 내에는 형이상학(존재론, 우주론 포함),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Philosophy, (from Greek, by way of Latin, philosophia, "love of wisdom") the rational, abstract, and methodical consideration of reality as a whole or of fundamental dimensions of human existence and experience. Philosophical inquiry is a central element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many civilizations. <https://www.britannica.com/topic/philosophy>

4) 이남영, 앞의 논문, 64쪽.

유기체 철학의 방법론과 유사한 사유를 추구했던 화이트헤드의 서양 유기체 철학적 세계관<sup>5)</sup> 단군신화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단군신화 텍스트의 관념적 구조 심층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것이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층 날카로워진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단군신화의 세계관으로부터 유의미한 한국적 정치사상이 추출될 수 있을지 그 여지를 점검해 볼 것이다.<sup>6)</sup>

## II. 한국 문명의 시원(始原)으로서의 단군신화: 대전적(大全的) 세계관의 심층 구조 연구의 필요성

이남영은 단군신화를 엄밀히 말하면 철학 이전의 이야기로서 “인간 자

5)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용어는 자신의 철학이 우주를 ‘세포’와 같은 살아있는 유기 생명체로 간주한다고 정의한 데서 나왔다. 또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유기체 철학이 거시, 미시의 양 측면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In the philosophy of organism, it is held that the notion of ‘organism’ has two meanings, interconnected but intellectually separable, namely, the microscopic meaning and the macroscopic meaning. The microscopic meaning is concerned with the formal constitution of an actual occasion, considered as a process of realizing an individual unity of experience, The macroscopic meaning is concerned with the givenness of the actual world, opportunity for the actual occasion. PM pp 128~129

6) 동양 철학은 흔히 서구의 이원론적인 분석철학과 대조되어 상대적으로 일원론적이고 따라서 유기체적 생명철학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단군신화는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국가의 건국신화 중 하나로서 마땅히 동아시아 문명의 어떤 원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넓게는 동양 철학의 전통과 어휘 속에서 분석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단군신화를 관념사적, 철학적으로 분석하는데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및 그 방법론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까지 서양 철학자 중에서 화이트헤드만이 거의 유일하게 동양의 유기체적 사유방식 및 동양 철학과 유비적으로 상응하는 철학적 분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동서양 간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토대를 제공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신의 집단적 생활과 그 주위 환경을 신화화하여 이해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단군신화가 한국이라는 국가와 민족, 한국 문명의 '역사적 전개 발전의 좌표 위에서 그 원점을 확보하는 소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이 신화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논할 때마다 흔히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거나, 「5천 년의 빛나는 전통」 운운하는 개념을 서슴없이 구사한다."라고 지적한다.<sup>7)</sup>

따라서 무릇 한국 정신사, 철학사를 기술하려면 단군신화를 기원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문제는 신화가 어떤 인간 집단이 자신들의 공동체와 대자연에 대한 전 논리적(前論理的), 초이성적(超理性的) 분여의 집단 경험에 관한 서술로서 일종의 무의식의 산물이라, 일반 학문인 철학, 역사학에서와 같은 개인의 지적 활동으로서의 학술 활동과 지향점이 판이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남영의 주장처럼 단군신화를 한국 관념사나 정신사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역사학처럼 엄밀한 사료적 고증을 요구하기보다는 해당 관념의 내부구조 자체를 논리적으로 집중분석 함으로써 문제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 될 것이다. 이남영은 고대 그리스의 밀교(密敎)였던 오르페우스 종교 신화에서 후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 도출되어 나온 점에 주목하고, 단군신화에서도 이른바 원초적 관념성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추상화, 철학화를 이룩할 경우, 이를 토대로 단군신화를 정규 학문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단군신화의 신화소인 환인, 환웅, 단군, 웅녀, 풍백, 우사, 운사, 홍익인간, 인간 세상 360사 등의 관념이 버무려져서 만들어 내는 체계적 세계상을 "기원을 묻지 않고 종말도 없는' 신들과 인간과 동물들의 상호감응의 관계성이 중시되며, 온통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

7) 그는 六堂 최남선이 일찍이 "단군은 진실로 조선 문화의 일체 種字(檀君神典의古義)라고까지 표현한 바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남영, 「思想史에서 본檀君神話」 『韓國 思想의 深層 研究』, 우석, 1986, 62~63쪽

데 모두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대의에 헌신하는 통정적(統整的) 세계(Integral World), 통일적 세계(World of Unity), 유기체적인 하나의 '대전세계(大全世界; the World of Grand Totality)'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하게 된다.<sup>8)</sup>

단군신화의 배경이 되는 당시 동북아시아는 비교적 광활한 지역의 풍부한 자연풍토를 갖고 있었고, 사계절이 뚜렷한 데다 비옥한 토지에 자연 하천을 이용한 관개수로망도 양호하게 발달하여 농업에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었던 것 같다. 이에 더하여 오늘날의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고대의 한민족은 자연에 순응하여 농업을 중심으로 임업, 수산업을 부가하여 운영하는 생활양식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질박한 심성과 풍부한 문화를 가꾸어 나갔을 것을 보인다. 이러한 농업 위주의 소박한 환경과 민족의 심성과 관련한 기록은 중국의 사서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sup>9)</sup> 이남영이 단군신화를 '농업신화(農業神話)'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아시아의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계절의 변화와 태양, 바람, 비 등의 기후조건에 잘 맞추어 가며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구의 생활경험과 단군신화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천신인 환웅(桓雄)과 지신(熊女)의 결합, 천신의 부하로 그려지는 풍백, 우사, 운사는 말 그대로 경작에 필수적인 자연적 힘이자 음양(陰陽)의 논리로도 볼 수 있다. 천신인 환웅과 그의 무리가 행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 주선악(主善惡) 등의 이른바 통치행위는 천신이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는 이국적인 다른 형태의 신화들과는 거리가 멀다. 환웅과 그 천신족 무리는 인간사 360사를 행하여

8) 이남영, 앞의 논문, 69쪽.

9) "동방민족을 夷族이라고 부르거니와, 夷라고 함은 뿌리를 뜻한다. 따라서 도의 仁을 높이고 生成을 즐겨 펼친다. 이는 마치 만물이 땅에 뿌리박고 솟아오르는 것과 같아 그들은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순하다. 『後漢書』 東夷列傳(이남영, 앞의 논문, 70쪽 재인용).

민생의 삶에 널리 유익하도록 했다고 묘사되어, 대략 농업장려와 가치 질서의 확립에 주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남영은 이러한 농업 신화적 특성을 가진 단군신화가 조명하는 세계상을 한마디로 ‘우주적 정신’으로 총명한 ‘능산적 우주(能產的宇宙)’라고 보았다.

이남영은 단군신화의 대전세계, 능산적 우주가 그리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사상사적으로 더욱 추상하여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한다. 첫째는 단군신화의 세계관이 중국의 고전 주역(周易)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문제이고, 둘째는 단군신화의 정신이 이후 한국 사상사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전승(傳承)되어 왔는가의 문제이다. 첫째 문제인 주역과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이남영은 주역의 천지(天地), 건곤(乾坤), 음양(陰陽), 삼재(三才) 개념이 기본적으로 단군신화 구조에 이미 유비적으로 함축되어 들어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다음과 같이 최남선과 이어령의 주장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의 주역 자체가 사실은 단군신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sup>10)</sup>

“우리나라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음양 사상은 周易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의 원시 사회의 설화에서, 즉 웅녀와 환웅의 근원상징(根源象徵) 속에서 훌륭히 암시되고 있다”〈이어령, 「韓國人の 神話」〉

“지나에 있어서의 易의 사상이며, 三才論 이나 특히 天 및 天子의 관념과

10)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사실은 단군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주나라 문왕이 만들었다는 周易보다는 복희씨가 만들었다는 先天易이 단군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장해야 한다. 先天易은 북송시대 역학자 소옹(邵雍)이 제창한 역학 이론이다. 구체적으로 《하도 河圖》과 ‘선천복희팔괘도(先天伏羲八卦圖)’를 바탕으로 하는 복희역(伏羲易)을 지칭한다. 소옹은 기존 통용되던 《주역》의 역학 체계와는 별도로 《하도 河圖》과 ‘선천복희팔괘도(先天伏羲八卦圖)’를 바탕으로 하는 역학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복희역(伏羲易) 또는 선천역이라 명명하였다. 이에 반해 통용되는 《주역》의 역학 체계 즉, 문왕역(文王易)에 대해서는 선천역과 대비하여 후천역이라 지칭하였다. 출전: 선천역[先天易]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37094&cid=40942&categoryId=31450>

같은, 그 문자의 形·音·義부터가 이미 東夷의 古哲學에 의거한 것인 듯하며, 그 종교적 정서와 같은 것은 전연 東夷에서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하다 ..... 음양 變易과 天人相與의 사상이 그로서 생기니, 동양 철학의 최고 전당인 易의 사상도 그 맹아가 진실로 震人에게서 나왔음을 여러 가지로 證迹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최남선, 「不咸文化論」)<sup>11)</sup>

이남영은 이러한 근거들을 볼 때 중국의 역 철학이 단군신화의 신화소(神話素)를 담고 있는 원형적 소재를 토대로, 이를 더욱 추상화, 철학화 시켜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중국 주역의 문제점으로 그 본래의 단군신화적 정신이 전승 과정에서 중국식으로 왜곡, 변질이 된 점을 아울러 지적한다.<sup>12)</sup>

두 번째 문제는 단군신화의 내적 정신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상사의 맥락에서 과연 어떻게 전승(傳承)되고 있는냐의 문제이다. 이남영은 단군신화가 조명하는 웅대한 세계관이 ‘우주적 정신’으로 충만한 ‘농산적 우주’였고, 통일적 세계, 유기체적인 하나의 ‘대전 세계(大全世界)적 우주’였으며, 이것이 한민족 최초 국가였던 고조선의 정신문명의 기저를 형성했고, 중국 역 철학의 형성에도 영감을 제공했을 정도로 대단한 관념의 체계였음을 주장한다. 그는 그러나 그 후의 전승(傳承)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모호해진다고 답답함을 호소한다. 이남영은 초보적으로 단군신화의 ‘대전 세계적 세계관’이 한민족 문명의

11) 이남영,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73쪽

12) 즉 음양의 의미는 중국적 오행 개념과 혼합되어 미신적 공론(空論)으로 전락한 점, 삼재(三才)의 사상이 중국적 도교에 수용되어 피세주의(避世主義) 경향에 치우친 점, 경천사상(敬天思想)이 진·한대이래 심하게 변형되어 전제군주의 지배이론으로 타락한 점, 성리학의 거두 주자(朱子)조차도 역학을 과도하게 주지주의적·도식적으로만 이해하여 원역(元易; 복희의 先天易)에서의 우주 생성역적(生成易的) 측면, 즉 우주의 매 순간의 새로운 창조와 역동적 변화를 반영하는 변역(變易)으로서의 생명성이 사라지게 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남영 앞의 책, 74쪽.

기저층(基底層)으로 작용하여, 이후 유입되는 불교, 유교 등 외래종교나 사상들과 결합 되고, 일정한 변형을 거친 후 한국식으로 토착화되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그 '상세한 혼합 또는 화합하는 과정의 구조는 묘연(妙然)하여 알기 어렵다'라고 솔직히 표현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한다. 또한, 이남영은 현재에 이르러 단군신화의 정신과 그 사상적 생명력이 역사에서 소실되어 버린 느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단군신화의 관념체계의 심층 구조의 내용 파악과 이에 대한 추상화, 철학화 등의 필수적인 후속 작업이 진전되지 못했던 점에 있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후학들의 분발을 강조했던 것이다.<sup>13)</sup>

이남영은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이미 단군신화의 세계관의 심층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혔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즉, 단군신화의 세계관의 심층 골격 구조란 “대전(大全)세계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선의(善意)를 지닌 어떤 하늘(天)적 존재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우주의 모든 자연적 힘(풍백, 우사, 운사. 삼천의 하늘 무리)을 동원하여 인간 세상을 이화(理化)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하늘(天)의 선한 마음과 이에 동조하는 자연의 힘에 대해 인간은 내적 수련(100일간 동굴에서 삼감), 외적 수련(영험한 약초의 도움)을 통해 종족 토tem의 협소한 신앙을 벗어나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서 홍익인간이라는 세계의 식(World Consciousness)을 갖고 우주의 목적론적 전진이라는 대사업에 하늘(天)의 동반자(Companion)로서 당당하게 참여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군신화의 구조와 내용에는 기본으로 동아시아 역 철학인 태극(太極) 사상, 천지인(天地人)의 삼재사상(三才思想), 음양(陰陽) 사상, 동아시아 역 철학 및 선가(仙家) 전통에서의 내단(內丹), 외단(外丹) 사상뿐만 아니라 현대 신화학의 최대 화두인 우주의 목적론적 진

13) 이남영, 앞의 논문, 75쪽

행(Teleological Advancement of Cosmos), 세계의식(世界意識)과 우주(天)의 동반자로서의 능동적 인간관 등 제 관념들이 거의 모두 원형(Prototype) 상태로 오롯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안중화의 단군신화에 대한 역사화, 철학화

이남영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겠지만 조선 말기의 관료이자 역사가, 교육자였던 함재(涵齋) 안중화(1860~1924)는 이미 약 100여 년 전에 단군신화에 대하여 현대의 한국학자들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파격적인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우선 단군신화를 신인(神人) 환인이 지배했던 환인국(桓因氏),<sup>14)</sup> 그의 아들로 역시 신인 환웅이 지배했던 도시국가 연합인 신시국(神市氏), 그리고 수출성인(首出聖人) 단군이 지배한 고조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던 역사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또한, 안중화는 환인국, 신시국, 고조선 시기의 각각의 시대정신(時代精神)의 문명적 표상(表象)을 선천역(先天易)의 태극(太極; 桓因), 양의(兩儀; 桓雄과 熊女の 陰陽), 삼재(三才; 天地人)라는 관념(觀念)으로 파악하여 단군신화에 대한 일종의 철학화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안중화의 주장은 단군신화의 “대전적 세계관”이 중국의 주역보다 오래된 것으로 유기체적 세계관인 동아시아의 선천역 사상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전술한 이남영의 주장을 미리 실증해 보인 것이다.

안중화는 철종 11년(1860) 경기도 광주지역의 몰락한 기호 사림파 사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 조선조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과거에서 문과에 급제했던 조선 유교 문명의 최후시기 인재였다. 그 후 그는 1910년

14) 이때 氏는 성씨가 아니라 나라 이름 ‘지’로 새겨야 하며, 桓因氏는 즉 桓國, 桓因國이다.

국권이 상실되던 시기까지 개화 운동가로서, 역사가로서 현저한 활약을 보였다. 그는 근대 서구 역사철학에도 관심을 두고, 몽테스키외, 칸트, 헤겔 등 근대 유럽의 관념론, 역사철학 등의 존재와 당대 유럽의 수학적, 과학적 발전의 성과 등을 중국을 통해 유입된 서적 정보를 통해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인류 역사가 단계적으로 진화, 발달해 왔다는 사회 진화론적 시각에 동감하고 그 사회발전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철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sup>15)</sup>

안중화는 18세 약관이던 1878년 단군에서 고려 말 공양왕까지 조선 역사를 다룬 『동사절요(東史節要)』 편찬을 완료했고, 그 후 26년 지난 1904년 이를 간행했다. 조선 시대 역사는 1909년에 따로 『國朝人物志』라는 책명으로 발간했다. 이처럼 안중화가 약관의 나이부터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통사적이고 체계적인 역사서술에 천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를 통틀어 조선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든 자문하고 대답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압도적 힘으로 접근해 오는’ 서구세력의 근대 과학 문명을 앞세운 제국주의적 세계제패와 동아시아에 대한 본격적 침투라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의 모색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 18세기의 서명응(徐命膺)<sup>16)</sup>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19세기 중엽 이후에 그 해결책을 역사학 연구와 국가의 교육 진흥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안중화였다.

15) 한영우, 「개화기 안중화의 역사서술」 『한국문화』, 8, 317쪽.

16) 서명응(徐命膺, 1716년 숙종 42년~1787년 정조 11년, 조선 후기의 문신)은 본관은 대구(大邱). 자는 군수(君受). 보만재(保晩齋)라는 호를 정조로부터 내려받았다. 흔히 북학파(北學派)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지며, 서구적 기하학,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북학 선천역 철학을 체계적으로 재해석하고 서구 과학을 받아들일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조선의 당시 역사(曆書)를 정비하였다. 출처: 인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4167&cid=46622&categoryId=46622>

안중화의 서구 역사철학과 사회 진화론적 주장에 관한 관심과 완성(完整)한 한국 통사(韓國通史) 저술에 대한 의지가 그의 단군신화 기술에 있어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그 철학적 의의에 대해 당시 주지학적인 기존의 역사 접근법과 현격히 다른 내용을 결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안중화는 우선 '군왕기(君王紀)'에서 환인에서부터 시작,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들의 치적을 소개하면서 단군조선에 대해 특히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단군조선의 역사는 단군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시까지의 관례였지만, 이 책에서는 단군에 앞서 환인국(桓因氏)과 신시국(神市氏)을 먼저 서술하고 있다. 이때 환인국과 신시국의 존속 기간에 대한 별도의 상세 설명은 없으나 상당한 기간을 상정한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리 동방의 역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환인과 신시에 관한 기록은 荒史에서 나오기 때문에, 作史者들은 공자가 옛 기록을 삭제하고 당오(요, 순)로부터 역사의 시발점으로 삼은 것을 모방하여 예로 삼아왔다. 그러나 단군 이전에 군장이 없었고, 단군의 향년이 천여 년이나 되며, 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나는 생각하기를, 神市氏[신시국의 덕이 쇠하여지자 檀君氏[고조선]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역사학적으로 볼 때, 단군 이전의 환인국과 신시국의 시대를 인정한 역사서술은 17세기 중엽 학자인 허목(許穆)의 『동사(東史)』에서도 이미 보이는 것이지만,<sup>18)</sup> 안중화는 바로 허목의 역사서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단군 이전에도 ‘군장’ 시대, 즉 국가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안중화는 환인국의 표상인 환인을 ‘수출신인(首出神人)’으로 인정하고, 신시국은 처

17) 한영우, 「개화기 안중화의 역사서술」 『한국문화』 8, 327쪽 ; 『동사절요』 권1, 군왕기 1, 단군조, 3쪽. 이때 氏는 성 ‘씨’가 아니라 나라 ‘지’로 읽어서 환인국, 신시국으로 새겨야 함이 합당하다.

18) 한영우, 「개화기 안중화의 역사서술」 『한국문화』 8, 46쪽과 한영우, 「허목의 「고학과 한국사 이해」 『한국학보』 40, 1985 참조.

음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살리는 정치를 하여 인문이 더욱 발달하고 여러 치적을 이루었다고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국내 산천을 치(治)하여 민거(民居)를 전(奠)하고, 초의와 복식, 하소와 동혈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편발(編髮)과 개수(蓋首)를 가르쳤으며, 의족과 음식의 제도를 시작하고, 세 아들을 시켜 성을 쌓게 하였는데, 이를 삼랑(三郎) 이라고 한다.”<sup>19)</sup>

안중화는 『고기(古記)』의 단군 관계 기사(記事)나 단군에 얽힐 신화, 전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재해석하는 평설(評說)을 첨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예컨대, 곰이 여자로 변해서 환웅과 혼인했다든가 단군의 수명이 1,048년이라는 등의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 아무리 성인(聖人)이라도 짐승이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또 단군이 1,048년간 살다가 상(商) 무정년(武丁年)에 아사달(阿斯達)에 들어가 신인이 되었다는 것도, 단군이 그때까지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 무정년에 백성들이 단군의 덕을 기려 아사달에 묘사(廟祀)를 세운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안중화는 고조선의 2대 군왕으로 단군의 아들인 부루(扶婁)를 소개하고, 부루의 치적으로 “夏后氏(禹王)가 水土를 평정하고 제후를 塗山에 모이게 하여 玉帛으로 상견하게 했는데 扶婁가 往會했다”<sup>20)</sup> 고 하고, 다시 그에 대한 해설을 가하여 “扶婁가 往會한 것은 左海의 외교의 시작”이라고 평가한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은 부루가 최초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중국(夏)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교한다면, 지리적으로는 일의대수(一衣帶水)로 가까우면서도 복식과 기호가 다르고 언어도 불통하여 서로 독자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우리나라는 이미 삼대지풍(三代之風)의 단계에 있어서 중국이 예(禮)를 잃었을 때, 외이(外夷)에게 예를 구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등 문화적 자부심을 표출하였다.<sup>21)</sup>

19) 한영우, 「개화기 안중화의 역사서술」 『한국문화』 8, 146쪽.

20) 한영우, 앞의 논문, 147쪽.

이처럼 안중화는 단군에 얽힌 고기의 기사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하여 이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단군 이전에는 군장이 없었다.”라는 당시 유학자(世儒)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안중화는 결론적으로 환인, 신시(환웅), 단군의 3자 관계를 역사철학적인 시대정신으로 표상하고 이를 관념화, 철학화 하여 설명했다. 즉 그는 “桓因은 太極과 같고, 神市는 兩儀와 같으며, 檀君은 三才와 같다”라고 하여,<sup>22)</sup> 환인 → 신시 → 단군의 계승 관계를 역 철학적 태극론의 발생 논리로 해석했다. 따라서 신시(神市)가 없이 단군(檀君)이 나올 수 없으며, 환인(桓因)이 없이 신시(神市)가 태어날 수 없음이 자명해진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역사를 단군의 고조선에서 시작하는 것은 부당하니, 환인국(桓因氏) 시대까지 당연히 소급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편,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풍백, 우사, 운사와 하늘의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를 베풀고 인간사 360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기간은 인류학적으로 고대 인류의 ‘태양신 숭배의 시기’와 겹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부계사회(父系社會)의 경향이 출현하여 모계전통(母系傳統)과의 대립이 표출된다. 이기(理氣), 음양(陰陽)의 양의(兩儀)를 환웅 세기의 시대정신이자 집합표상으로 상정한 것도 적절해 보인다.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 이화(在世理化), 풍백·우사·운사, 인간사 360가지 사무 등의 가치체계는 이(理)적으로 완전한 이상적 국가의 업무 체계이기도 하고

21) 한영우, 앞의 논문, 148쪽.

22) 한영우, 앞의 논문, 147쪽 및 앞의 책 권 1, 군 왕기 제1 환인씨조, 2쪽, 기타 18세기 중엽~19세기 말까지 조선 기호 지역 지식층의 주역을 활용한 서구 근대 과학기술문명의 침투에 대한 대응책 마련 동향에 관한 연구는 서근식, 「조선후기(朝鮮後期) 경기학인(京畿學人)의 『주역(周易)』 해석방법(解釋方法)에 관한 연구(研究)」(2) - 이익(李瀾), 정약용(丁若鏞), 박제가(朴齊家), 김정희(金正喜), 서명응(徐命膺), 신작(申緯)을 중심(中心)으로 - 『한국철학 논집』 21, 2007, 125~165쪽 및 이봉호, 「서명응의 『참동고』, 몸에 세운 世界相」 『도교문화연구』 48, 2018, 69~102쪽 참조.

기(氣)적으로는 현실정치, 사회, 윤리, 경제의 한 국가 사무의 구체적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단군조선과 관련하여 환웅이 인간화한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 시대의 개조(開祖)를 낳는 장면은 세계 비교신화학에서 태양숭배의 천신족(天神族)이 부계사회 시대를 열면서 그때까지 주도세력이었던 동물토텐의 지신족(地神族)을 누르고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고대국가의 출발과 발전을 표상하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됨을 표현한 것이다.<sup>23)</sup> 안중화가 단군세기의 시대정신과 집합표상을 삼재(三才)로 설정한 것은 혜안이었다. 삼재 표상은 ‘天·地·人’ 3자의 상즉상입(相即相入)하는 중층적 분여(分與)의 상(相)을 구현한다. 단군신화에 나타난 삼재 사상은 천신족인 환웅(天)이 곰 토텐의 지신족 웅녀(地)와 혼인하여 단군이 탄생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즉 천지(天地) 간의 창조력의 씨줄과 날줄인 음양, 이기(理氣)의 결합과 이로 인한 고조선 신인류와 문명이 탄생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안중화가 환인 세기의 시대정신이자 집합표상을 무극(無極)부터 논하지 않고 바로 태극(太極)으로 이해한 것은 단군신화 속에 천지창조의 내용이 없이 바로 환인의 신대(神代)가 출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주 시스템 밖에서 부동(不動)의 초월자(超越者)가 무(無)에서 우주를 창조한다는 서양식의 극단적 종교성 도그마를 강조하지 않는 역(易) 철학적 태극론에 충실한 것이었다. 즉 무극(無極)은 동시에 태극으로서 이미 통합적인 현 우주에서 그 외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신인 환인조차도 대전적(大全的) 우주 내의 존재일 뿐이다. 안중화에게 있어 우주는 마치 카오스(無)와 코스모스(有)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치의 간격도 없이 결합한 대전적 유기체 우주

23) 이경우 대부분의 외국 신화에서는 여성인 지신족이 천신족에 의해 대량으로 도살되며, 주로 거인으로 표상되는 여신의 몸을 해체하여 우주를 창조하는 줄거리가 주를 이룬다.

인 것이다. 이러한 안중화의 단군신화 해석은 신화가 구체적인 물(物)을 상징하는 수준을 넘어서 최고도의 추상(抽象)적 상징, 또, 더 나아가 추상의 추상조차 구현할 수 있는 최고도의 철학적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 IV.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과 단군신화의 대전적 세계관과의 심층 구조에 대한 유비적 비교

단군신화의 관념적 구조의 심층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안중화의 단군신화에 대한 동아시아 역 철학적 유기체 우주적 해석에 더하여 서양의 대표적 유기체 철학자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의 유기체 생명 우주론의 관념적 심층 구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안중화·이종남의 단군신화에 대한 철학적 이해 내용과 비교해 봄으로써 동서양의 유기체 철학의 주장을 종합하여 그 관념의 심층 구조의 세부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후에 이를 국제적 학술의 장에서 논제로 삼는데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1860년을 전후로 각각 구한말의 조선반도와 유럽의 섬나라 영국에서 각각 태어났으나 거의 생몰 연대가 비슷하여 사실상 동시대를 산 사람이다. 더욱이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이 평생 해결을 위해 매진했던 과제도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유사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문제는 당시 기계론적 이원론 사유방식에<sup>24)</sup> 토대한

24) 세계를 세계외적 존재인 창조자 神이 창조한 정교한 시계와 같은 물질로 구성된 우주와 이 우주를 관조하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우주관을 말하며 이는 소위 데카르트적 이원론(Cartesian Dualism)과 뉴턴적 천체 물리 운동이론으로 대표된다. 이는 우주를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개의 본질(substance), 즉, 존재를 위하여 자기 자신 이외에 어떤 것도 불필요한 자기 원인적 본질(Causa Sui)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원론이었다. 이때 물질의 속성은 연장(延長: Extension)이고

서구 문명 제국이 증기기관 사용 등 과학기술의 성과를 한껏 활용하여 대 폭 증대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규모로 제국주의적 폭력성을 투사(投射)하기 시작한 것, 이로 인해 조선을 포함한 당시 아시아 국가 문명에 전대미문의 도전이 제기된 점 등의 시대 상황과도 맞물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유사한 세기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 것도 두 사람에게 어찌 보면 공통된 과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의 경우에는 자신의 유기체 철학으로부터 작동 가능한 대전적세계관(大全的世界觀)의 내부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수학적 방법을 통해 구성해 냈다. 그는 우주적 변화 과정(cosmic process)의 근원적인 동력으로서 마치 주역 철학의 우주 혼연일기(渾然一氣)의 생성 활동과 유사한 '합생(合生; concrescence)' 개념을 도입했다. 합생은 화이트헤드가 우주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데카르트적 이원론(Cartesian Dualism)인 '정신'과 '물질' 개념을 포기하고, 새로 도입한 기본 개념, 즉, 관계(Relatedness)와 연결(Continuum)을 활용하여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완전(Complete)하고, 논리적(Coherent)이며, 합당(Adequate)한 기본 개념이 되었다. 화이트헤드는 그가 구상한 '마치 한 개의 세포와 같은' 생명 우주의 내부를 '질점(質點; Material Point)을 갖고 빛의 속도로 요동치는 무수한 수의 양자(量子)의 바다와 같은 것'으로 상정했다. 양자가 빛의 속도로 모든 방향으로 요동치는 상태는 시간도 흐르지 않는 절대적 혼돈의 상태이며 따라서 카오스이자 무극(無極) 상태다. 이러한 카오스 상태에서는 어떤 주체가 분별지(分別智)를 갖고 대상을 분석한다는 것이 삼체문제(Three Body Problem)로 인해 불가능하다.<sup>25)</sup> 따라서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주체(Subject)는 합생의

정신의 속성은 사고(思考; Thinking) 이다.

25) 3체 문제란 동태적 장(場, field)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변수인 질점(質點; material point)이라는 개별 행위자(player)의 숫자가 3개 이상일 경우, 열역학적인 3체 문제에 빠져 카오스 상태가 초래된다. 2체 문제는 수학적으로 풀 수 있으나 3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3체 문제의 운동방정식은 초 고차

최종 결과에서 맨 나중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태(Event)다. 그의 합생 이론은 감정(Feeling), 파악(Prehension), 만족(Satisfaction), 주체적 형식(Subjective Form), 간주체(Super-ject), 주체(Subject), 변이(Transform)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용어는 플라톤 이래 기존의 이원론적 서구철학 전통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들이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유기체 철학을 전개하는 데 기존 철학의 개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신개념을 만들어 썼다. 따라서 어떤 개념은 외양은 단순한 일상 단어이나 그 단어의 철학적 의미의 외연(外延)과 내포(內包)는 화이트헤드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변형되고 확장된 것이다.

합생 이론의 요지는 이렇다. 우주 내에 처음부터 정신과 물질이라는 본질(Substance)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태는 다른 모든 사태와의 관계(Relatedness)에서 발생하고, 그 결과는 긴밀히 연결(Continuum)되어 우주를 구성하고, 우주적 진행을 추동한다. 첫째로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인 합생의 시작은 카오스(無極) 상태의 양자 요동의 바다에서 모종의 우주적 감정인 에로스(Feeling)가 발생하고, 이어 모든 우주의 요소들이 다른 모두를 이해하기 위한 파악(Prehension)의 과정이 시작된다. 파악의 시작은 대상 모두에 대하여 물리적 운동량을 주고받음으로서 추동되고 그 상대들의 물리량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는 접수하고 다른 요소들은 배제되는 과정(Process)에서 주체적 형식이 현현(顯現)한다. 이처럼 모종의 벡터적 물리량이 개입하는 기(氣)적인 파악은 순수하지 않은(impure) 파악이라고 정의한다. 파악의 두 번째 정의로는 물리량 이외의 일종의 개념적 잠재력에 대한 순수(Pure)한 이(理)적인 파악이 있다. 순수한 파악은 파악과정 후 반부인 주관적 형식이 나타날 때 개입하고, 이후, 파악의 모든 내용이 완료

(18차)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며, 합당한 적분 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19세기 말 푸앵카레 등에 의해 증명됨으로써 3체 문제의 정확한 풀이는 불가능함이 입증되었다.

되어 만족(Satisfaction)이 이루어지고 주체(Subject)가 최종 발현하는 단계에 이른다. 단, 그 직전, 파악의 전 과정을 역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역(逆) 파악의 과정을 통해 만족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 절차가 첨가된다. 파악의 최종 주체로서의 결과물은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라고 하고, 또, 이런 전 과정을 합생(Concrescence)이라 부른다. 그런데 합생의 결과 발생한 주체는 그 자체가 주체이면서 또한 바로 다음 단계의 합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하여 간 주체(間主體; Super-ject)로 전환(Transform)된다. 이때 주체는 불멸의 존재(immortal object)로서 우주의 총체적 정보량에 편입된다. ‘현실적 존재’는 일종의 미립자(Corpuscular)의 성격을 지니며, 간 주체로 전환될 때는 동시에 파동(Wave) 성격도 갖는다. 이것이 미립자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함께 갖는 이유이다. 이러한 합생의 모든 과정은 빛의 속도를 갖는 양자의 카오스적 요동 속에서 진행되므로 비 시간적 과정이다.

둘째로 ‘연결(Continuum)’에 대한 이론의 요지는 이렇다. 기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합생의 결과물들은 연결의 분지(分枝; Bifurcation)와 이 분지의 단계적 차이(Gradation)라는 속성에 의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명 우주의 잠재력의 크기의 위계질서(Hierarchy)로 결집한다. 기하학에서 1차원(one-dimension)은 점(Point)이 연결된 선(Line)이다. 2차원은 선이 결합한 면(Face)이다. 3 차원은 면이 쌓인 입방체다. 잠재력의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2차원의 생명체가 있다면 선에서 움직일 것이고 장애물이 나면 우회 불가능하다. 2차원의 생명체는 벽을 기어오르지 못할 것이다. 3차원의 장애물은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은 현실 세계에서 가장 강도가 높다는 다이나몬드조차도 결국은 해체한다. 같은 논리로 차원을 높여가면 4차원은 전자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와 관련이 있고, 5차원은 광자(光子; Photon)의 자유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기하학적 잠재력의 차원을 높여가다 보면 심지어 수학적으로 무한차원(단,

그는 예시적으로 333차원을 언급함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sup>27)</sup> 이런 최고 차원의 표상은 우주의 총체적 잠재력을 의미하며, 이것을 신(God)이라고 호칭했다.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신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논리적 개념으로서, 우주의 합생 과정에서 현현(顯現)한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로 상징된다. 즉 신은 비시간적 합생 과정에서 우주의 총체적 잠재력을 원초적(Primordial)으로 순수한(pure) 개념 측면에서 파악하여 탄생한 현실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상이 화이트헤드의 연결(Continuum) 구상의 핵심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잠재력 차원의 위계적 연결이 절대로 상위 차원이 하위 차원을 강제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다. 2차원의 면의 잠재력은 1차원인 선의 속성을 확대하여 구현되고, 3차원인 입방체의 잠재력은 2차원인 면을 포개어 그 속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식으로 구현되듯, 4차원의 잠재력은 3차원 입방체의 속성이 최대한 발현되는 형태로 구현될 것으로 상징된다. 이를 일반화하면  $n$  차원의 잠재성은  $n-1$  차원과 그

---

26) 3차원의 인간은 4차원인 시간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 전자기적 현생 우주에서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빛과 같은 입자이며 특히 삼 차원적 물체를 변형시키는 것은 분자 핵 최외곽의 궤도를 도는 전자의 존재이다. 따라서 4차원이란 입자(특히 전자)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같은 논리로 5차원인 열역학적 공간의 문제는 광자(photon) 내지는 양성자의 자유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차원의 해결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차례로 높여가며 상징할 수 있다.

27) 화이트헤드 자신은 수학적으로 가능한 차원은 약 333차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333차원이라는 숫자에 대해 가능한 수학적 공식을 어떤 형태로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Whitehead, A. N, Process and Reality, the Free Press, 1978, 289쪽. "So far as mere extensiveness is concerned, space might as well have three hundred and thirty-three dimensions, instead of the modest three dimension of our present epoch. Indeed the sheer dimensionality of space, apart from the precise number of dimensions, is such an additional fact, not involved in the mere notion of extension."

이하 속성의 최대한 발현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결국,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우주에서는 우주의 잠재력의 총체인 신의 목적은 우주 내 모든 차원의 속성들이 최대한 구현됨으로써만 실현되는 것이며, 따라서 신은 우주의 잠재력이 실현되어 늘 새로움(Novelty)이 창조되길 희구하는 존재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새로움의 창조를 우주의 목적론적 진행(Teleological Advancement)이라고 부른다.<sup>28)</sup>

화이트헤드의 철학 체계에서 4차원의 시공간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이다. 그는 ‘합생’의 과정(Process) 자체는 비시간적 과정이지만, ‘합생’의 결과물인 ‘주체’가 4차원 시공간의 실재계(Reality)로 투사(投射; Projection)되는 순간, 정신적 극(Mind Pole)과 물리적 극(Material Pole) ‘사이에서 객체화(Objectification)’ 되어 현생 우주의 특성인 전자기적 우주의 시간적 질서(Temporal Order)로서의 ‘현시적 직접태(Presentational Immediacy)’로 표출된다고 한다. 이는 마치 동아시아 선천역(先天易) 철학적인 사유를 들어 유비 하자면, 하늘(天)과 땅(地), 즉 음양의 장(場) 사이에서 다양한 혼합물로서 투사(投射; Projection)되어 나오는 천지(天地) 우주관과 같은 발상이다.<sup>29)</sup>

이상에서의 화이트헤드의 철학 이론은 영국의 경험론적 입장을 극단적으로 확장하여 비시간적인 실질적(actual) ‘합생’ 과정이란 수학적 도구를 통하여 최대한 확장된 의미에서의 경험적<sup>30)</sup> 실제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28) 단군신화 우주론에서 우주의 진행 방향의 목적론적 방향성은 화이트헤드의 경우에서보다 좀 더 명확하다. 단군신화에서 우주적 표상인 환인(태극), 환웅(양의), 단군(삼재)은 모두 우주의 진행 방향이 명확하게 在世理化, 接化群生, 弘益人間 하는 방향으로 목적론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9) 이는 또한 단군신화의 환웅 시대의 표상인 [환인의 태극에서 이어서 출현하는 양의(兩儀)의 표상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기(理氣) 또는 음양(陰陽)으로 이해되는 양의(兩儀)에서 삼재(三才)의 토대가 되는 건곤감리(乾坤坎離)의 사상(四象)이 출현하고 이윽고 우주 만물이 생성되어 나온다.

화이트헤드의 주장에 따라 그가 마음속에 세웠을 것으로 추정해본 그의 세계관의 관념적 구조물(像)은 대략 <圖-1>과 같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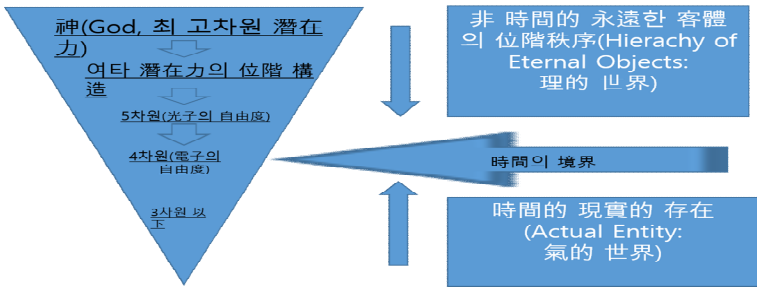


<圖-1>

상기 도형은 무질서한 양자의 바다(카오스, 無極)에서 질서(코스모스, 太極)가 발현되는 모습을 구현한다. 여기서 코스모스의 질서를 의미하는 역삼각형은 차원(Dimension) 수준의 잠재력의 크기를 표시한다. 카오스의 아래쪽은 우주의 열역학적 죽음의 방향일 것이다. 이 질서의 역삼각형만을 圖-2로 추출하여 상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圖-2의 우측의 화살표는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현실적 존재를 발현시키는 차원의 단계가 수학,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측정능력(measuring ability)이 향상될 경우 상향 조정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31)</sup>

30) 단 이때의 경험은 인간의 3차원적 감각 제한을 감안, 비감각적 지각으로서의 논리학, 수학 등의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도의 추상(抽象)적 경험을 의미.

31) 실제로 현대 물리학의 초끈이론(super string theory)에서는 물질의 기본단위인 초끈이 11차원의 존재이며 이 중 6개 차원은 아주 작게 말려 올라가서 측정이 어렵고 따라서 사실상 5차원의 존재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한다.



〈圖-2〉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안중화의 단군신화의 주역 철학적 이해 방식이 유기체 철학의 특성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두 철학 체계가 갖고 있는 카오스모스적 구조 때문이다. 圖-1은 양자의 무질서한 운동의 양태를 나타내는 카오스에서 시원적(始原的; primordial) 존재인 신(神)이 발현된 모습을 보여준다, 신은 일종의 질서(cosmos, 太極)의 출현이다. 영원한 객체의 최고형식인 신은 자신도 비시간적 존재이고, 카오스와 코스모스는 시간적 선후를 가릴 수 없으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천역 철학으로 말하자면 태극이면서 동시에 무극인(太極=無極) 카오스모스(Chaosmos)인 것이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우주는 圖-2가 예시하듯 모든 사태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카오스모스적 유기체 우주 구로로서 대전(大全) 세계를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안중화도 비존재로서의 무(無)나 공(空)을 언급하지 않는다. 안중화에게 있어서도 우주의 시원인 태극(신=환인)은 무극(카오스)과 동일 위상의 존재인 것이다.<sup>32)</sup>

한편 화이트헤드와 안중화의 단군신화의 철학적 해석 체계에 있어서 우주의 목적론적 방향성과 관련, 김용옥은 圖-3과 같이 유비적으로 통합, 이해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32) 한영우, 「개화기 안중화의 역사서술」 『한국문화』 8, 147쪽 참조.

현실적 계기 Actual Occasion		기(氣) Ch'i		칠정(七情) Seven Sentiments
영원적 객체 Eternal Object		리(理) Li		사단(四端) Four T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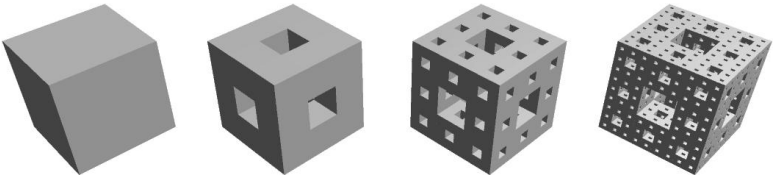
〈圖-3〉

(김용옥 서문 중, 오영환, 『화이트헤드와 인간의 시간 경험』, 통나무, 1997, 19쪽)

여기서 김용옥이 화이트헤드 철학과 주역 철학의 용어를 병치시켜 유비적으로 합성한 개념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선 중기 퇴계와 기고봉 간의 인간 심성 논쟁인 사칠 논쟁(四七論爭)의 핵심인 사단(四端)의 소종래(所從來) 주장과 관련하여 김용옥은 퇴계의 편을 들어 퇴계가 사단을 영원한 객체, 즉, 이(理) 편에 배치한 것은 화이트헤드의 합생론의 최종 단계에서 주체적 형식이 마지막으로 “영원적 객체의 위계질서의 최고단계인 신(神)의 목적에 비추어 합생의 전 과정을 역으로 반추(reversal)해 보는 단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점에서 이를 소종래의 근거로 상정하여 이(理)로 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적 사유의 구조 내부와 안중화 [이남영의 대전적 세계관도 함께 생각하여]의 단군신화의 선천역(先天易) 철학적 해석 구조의 내부를 상기와 같은 2차원적 도표로서 비교해 보면 이들 둘 사이의 유비적 동질성이 비교적 명료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화이트헤드 자신이 머릿속에 그렸음직한 그의 사상의 장엄한 화염적 333차원적 구조를 도표로 그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3차원 이상의 도표는 2차원 공간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3차원 도표를 “스케일 차원 프랙털 (Scale Dimensional Fractal)”로 해석하여 초보적으로나마 333차원과 그 속에서 시공간 4차원의 의미를 유비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기하학적 도식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우리 한국인이라면 그 대략의 모습을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다. 아미도 그 모습은 우리가 산사에 가면 볼 수 있는

불교 만다라 탱화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화엄적(華嚴的)으로 상즉상입(相卽相入)하면서 우주의 목적론적 진행 방향에 어떤 형식이든 시스템적으로 기여 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만물의 이러한 화엄적 발현의 양태를 수학적으로는 만물이 상호 반영하는 자기 닮음(Self Similarity)의 프랙털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3차원적 기하학 도형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멩저 스펀지(Menger Sponge)’라는 입체 프랙털의 상(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sup>33)</sup> 멩저 스펀지 프랙털을 만드는 방법은 圖-4와 같이 정육면체에서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를 계속해서 도려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내부에 크고 작은 공간을 많이 가지게 되므로, 결국 부피는 한없이 작아지고 표면적은 한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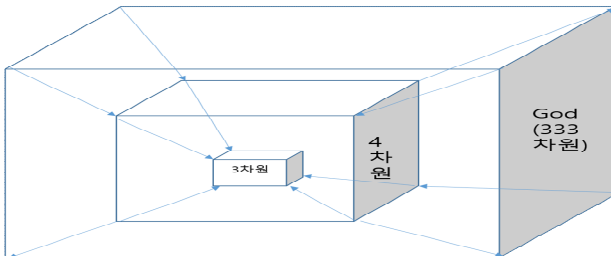
〈圖-4〉

이 입체 프랙털의 해석기하학적 의미는 3차원의 입방체 내에서 자기 닮

33) 각주 50의 내용이 되풀이되는 감은 있으나 화이트헤드 자신은 수학적으로 가능한 차원은 약 333차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학과 과학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차원의 스케일(Scale Dimension)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고 상정한 것 같다. 따라서 333이라는 표현은 ‘왜 3차원인가? 그러면 최고 수준의 잠재력의 극단(God)을 333차원으로 보면 만족하겠는가?’ 하고 묻는 화이트헤드식의 유머로 보인다. Whitehead, Alfred North, Process and Reality, The Free Press (New York), 1978. 289쪽

34) 출전 프랙털 도형 모음. <http://ko.mathpedia.wikidok.net/wp-d/5b51c7ed659fa9a64c8d47af>

은꼴의 내부 프랙털 입방체를 무한대로 도려내면서 만들어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3차원의 특성인 입방체의 체적은 0으로 수렴하는 대신 2차원의 면(면적)은 무한대( $\infty$ )로 창조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석기하학적으로 일반화시켜 보면  $n$  차원의 프랙털 도형에서 내부 프랙털 도형을 무한대로 덜어내면  $n-1$  차원의 속성이 무한대로 확장, 실현된다. 이를 333차원의 현실에 대입하여 차원을 축차적으로 낮춰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4차원의 시공간에 적용해 보면 4차원 시공간의 속성은 무한한 형태의 무한히 가분(可分)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이 무한히 창조되는 장소이다. 여기서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은하시스템이 사실상 보다 상위의 어떤 존재의 신체 일부일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눈앞의 전기스탠드의 내부에 또 다른 은하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으로 언급하는 등, 마치 화염경의 만다라 탕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화이트헤드의 논점은 우리가 사는 333차원의 대전적 유기체 우주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의 존재들이 개별적으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에너지가 여하히 우주의 총체적 목적론적 전진에 합당한 기여로 작동하는지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이것을 여하히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보여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랙털 수학의 멩거 스펀지 프랙털 도형을 토대로 한층 더 추상화하여 표현해보면 <圖-5>와 유사할 것이다.



<圖-5> 멩거 스펀지 333차원 프랙털 추상모형

여기서 가장 외곽의 입방체는 333차원을 추상한다. 내부의 2개의 박스는 각각 4차원과 3차원 공간이다.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존재하는 3차원은 사실상 시간 차원을 더한 4차원의 시공간이라고 한다. 4차원의 시공간의 속성은 4차원 이상의 모든 고차원의 속성을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조합으로 해석해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차원 공간의 모든 존재는 프랙털적 자기 닮음의 속성을 갖는다. 즉, 우리가 사는 4차원의 시공간이란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333차원의 생명체 우주에서 4차원이 최선을 다해 크고 작은 3차원의 입방체의 극도로 다양한 형태 조화(Harmony)의 총합으로서 구현해 낸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시간이란 그 대소 입방체의 무한한 조합 구조의 총체적 조화(Harmony)가 담보되는 기제로서 일종의 기능(Function)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생 우주 전체에 펼쳐져 있는 천체의 배치 구조는 圖-5와 유사한 프랙털 형상이라고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은하는 은하계를 형성하고 은하계는 은하단을 형성하고 이들 모두는 우주의 중심을 향해 공전(公轉)한다고 한다. 미시 차원에서 전자는 원자핵 중심을 향해 돈다. 이들 원자는 우주 전체 물질의 기본적 구조다. 이처럼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는 우주 전체의 형상을 반영하고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내부구조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기본적으로 태양계의 구조를 반영한다고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주의 총체적 양태가 가장 미시적 존재인 원자에까지 상즉상입(相即相入)하는 화엄적, 대전적(大全的) 유기체 세계관으로서 안중화, 이종남이 파악했던 선천역학의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간의 자기 닮음의 프랙털 구조와 유비적으로 일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우리는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의 심층 구조가 안중화, 이종남의 단군신화에 대한 선천역 철학적 사유구조와 유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과정 철학적 사유에서 어떠한 정치사상이 추출될 수 있는가? 그의 철학에서 정치사상은 문명론을 통해 나타난다. 그

의 문명론 주장의 요지는 무릇 모든 유기적 구조에서 부분은 전체를 상징한다는 대전제에 압축된다. 예를 들면 인간 언어 시스템에서 개별 단어가 상징이라면 그 상징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인과적 해석(Causal Efficacy)은 어학 사전일 것이다. 또 단어 체계에서 문자는 구어(口語)의 상징이다. 십자가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을 나타낸다. 같은 논리로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4차원 시공간의 세계는 결국 최고 차원[333차원의 총체적 우주를 최대한 4차원의 속성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최고 차원에 대한 상징 차원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의 문명론의 요지는 4차원 시공간 속의 인간 문명이 기본적으로 상징으로 가득 찬 일종의 '상징의 헌법(Constitution of Symbols)'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 상징의 배면에 있는 해석의 시스템, 즉 인과적 효과는 총체적 우주 존재가 궁극적 배경으로 담보된 것이다. 인간 이성의 기능은 상징과 인과적 효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그 괴리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문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해당 문명의 성원인 개인을 공공성(公共性)의 가치체계로 사회화시켜, 문명의 안정을 꾀하고 미래 발전에 이바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 법률, 정당 등은 문명의 상징헌법의 중요한 장치들이며, 그밖에도 언어, 경제, 문화, 사회, 관습, 과학기술 등 문명을 작동하도록 만드는 모든 장치가 상징의 헌법을 구성한다. 문명의 상징헌법과 문명 성원인 개인 사이에 괴리가 생길 경우, 극단적 사태로서 혁명이 발발할 수 있다. 러시아 혁명에서는 러시아 전통 문명의 원형 자체가 사실상 붕괴, 소멸한 바 있다. 문명이 소멸하면 정치는 회유보다는 폭력적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문명 내 지도 계층의 영도력, 즉, 이성(Reason)의 역할은 문명과 개인 간의 괴리 문제와 관련, 가능한 최적기에 상징헌법의 관련 항목을 개선하여 혁명과 같은 위험 사태를 방지하는 한편, 문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은 한국 문명과 정신사의 기원인 단군신화를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학, 철학 등 보편 학문의 대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남영, 안중화와 화이트헤드 삼자의 유기체 철학적 세계관의 심층 구조를 파악했고 이들 간의 유비적 비교를 통하여 단군신화의 관념적 구조의 심층을 최대한 확대하여 가능한 풍부한 함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삼자 간의 주장이 상당한 정도로 유비적으로 부합됨을 논증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특히 정치사상을 추출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몇 가지 논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유기체 철학에서 제시되는 우주가 우주 차원의 새로움(novelty)을 탄생시키는 목적론적 진행 방향을 갖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향후 인류문명은 폭력보다 설득에 기초한 함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적 질서가 확산할 것으로 확신하는 듯하다. 철학적으로 해석된 안중화와 이종남의 단군신화에서도 대전적 우주의 진행 방향은 ‘홍익인간’이라는 목적론적 방향성을 보인다. 화이트헤드 철학의 세계관에 있어서 ‘영원한 객체의 가치적 위계질서’는 ‘문명의 상징헌법’을 추동하는 인과적 효율성(Causal Efficacy)으로 기능한다. 마찬가지로 단군신화 세계관에서도 이적(理的) 질서로서 천신 환인, 환웅, 그리고 하늘의 질서인 360사가 종합적으로 언급하는 이상화된 가치의 위계질서가 있고, 이러한 이적 질서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여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실천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한국 정치사상의 요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명의 제 장치 중, 특히 정치에서는 무엇보다 그 문명국가의 지도층이 이성과 실천력을 발휘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로서의 선공후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 최치원이 난랑비서에서 언급했듯 유불선(儒佛仙) 삼교를 그 안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던 신라의 선교(風月道)는 단군신화

의 대전적 우주관의 옹호한 전통을 승계하였다. 그러나 신라이래 한국 문명이 중국을 통해 수입된 유불도(儒佛道)에 압도된 느낌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이들 삼교가 풍월도 등 한국의 선가(仙家)적 사유나 수련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이해가 쉽고 따라서 접수하기 쉬웠던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또, 집권층에게 민주적, 민본 사상이 강조되는 단군신화의 세계관적 사유보다 민중 지배의 수월한 수단이 되고, 자신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서의 부담도 경감되는 외래종교 및 사상을 채택했던 측면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 태초로부터 이어지는 한국 문명 자체의 정당성의 근원을 자체의 세계관인 환인·환웅·단군의 하늘(天)이 아니라 타자(他者)의 하늘에서 찾게 되어 사대주의가 출현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근세 이후 한민족에게 참기 힘든 총체적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단군신화의 전승을 되살린다는 것은 한국 고유 세계관의 하늘(天)을 회복한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국학(國學)을 살린다는 것이고, 동시에 한국 문명의 총체적 잠재력을 부활시킴을 의미한다. 그것이 한국 정치사상의 중요한 한 가지 책무일 것이다.

※ 투고일자 : 2019. 11. 25 심사일자 : 2019. 12. 13 게재확정일자 : 2019. 12. 15

## 〈참고문헌〉

- 김상일, 『뇌의 충돌과 문명의 충돌』, 지식산업사, 2007.
- 김상일, 『수운과 화이트헤드』, 지식산업사, 2001.
- 김상일, 『화이트헤드와 동양 철학』, 서광사, 1993.
- 루시언 프라이스 기록, 오영환 역 『화이트헤드와의 대화』, 궁리출판, 2007.
- 브루스 링컨 저, 김윤성 외(공역),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10.
- 신용하, 「고조선 문명권 형성의 기본구조」 『단군학연구』 23, 2010·11, 239~322쪽.
- 오영환, 『화이트헤드와 인간의 시간 경험』, 통나무, 1997
- 이남영, 「思想史에서 본 檀君神話」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우석, 1986. 62~75쪽.
- 이봉호, 「서명응의 참동고, 몸에 세운 世界相」 『도교문화연구』 48, 2018, 569~102쪽.
- 정영훈 외,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8집—단군과 근대 한국 민족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정영훈, 「안재홍의 고유 썸말 해석과 조선정치철학론」 『고조선단군학회』 33, 2015.12, 257~289쪽.
- 정영훈,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조선단군학회』 34, 2016.6, 149~186쪽.
- 한영우, 「개화기 안중화의 역사서술」, 『한국문화』 8.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7, 135~157쪽.
- 화이트헤드, A. N, 오영환 역, 『과학과 근대세계』, 서광사, 1989.
- 화이트헤드, A. N, 오영환 역, 『관념의 모험』, 한길사, 1996.
- 화이트헤드, A. N, 오영환·문창욱 역, 『열린 사고와 철학』, 고려원, 1992.
- 화이트헤드, A. N, 정연홍 역, 『상징작용』, 서광사, 1991.
- Whitehead, Alfred North, Process and Reality, The Free Press(New York), 1978.

〈Abstract〉

Review on Dangun-myth from the standpoint of  
Process Philosophy of Alfred North Whitehead:  
An analysis on the deep structure of the World  
View of Grand Totality

Ohm, Ki-Sung

While Dangun-myth, as a historical starting point of Korean Civilization, has to be rightly considered capable of supplying with all the necessary comprehensive intellectual archive enabling the universal academic activities such as history, philosophy and political thoughts in Korea, the high expectation has been beyond satisfaction so far because of the lack of complete understanding on the detailed deep structural information behind the myth. This paper seeks to find a hint of the said information by analogically comparing Ahn, Jong-Hwa and Lee, Nam-young's understanding of Philosophy of Organism(the World View of Grand Totality) vis-a-vis Dangun-myth with that of Alfred North Whitehead. In so doing, this paper also aims at finding a feature of political thoughts which might make possible the much needed academic initiation in betterment of the future for Korean Civilization.

※ key words : the World View of Grand Totality, Philosophy of Organism,  
Deep structure of Ideas on Dangun-myth, Analogical  
Comparison, Korean Civilization